

‘반전의 5월’ KIA 방망이, 삼성·SSG 악몽 날린다

T 타이거즈 전망대

숨막히는 자리싸움이 펼쳐진다. 뜨거운 한 주를 보낸 KIA 타이거즈가 본격적으로 순위 싸움에 뛰어든다. KIA는 롯데와 NC를 만났던 지난주 5승 1패를 수확하면서, 7위에서 공동 4위로 뛰어올랐다. 현재 3위 키움부터 7위 두산까지 1.5경기 차로 촘촘하게 자리하고 있어 매일 자리가 바뀌는 혼돈의 순위 싸움이 예고됐다. 지난 4월 10승 14패로 적자 살림을 했던 KIA는 반전의 5월(13승 6패·승률 0.684)을 보내고 있다. 뜨거워진 방망이가 흐름을 바꿨다. KIA는 팀 타격 부문에서 타율(0.270), 타점(198점), 2루타(85개), 출루율(0.353), 장타율(0.401) 1위에 랭크됐다. 결정적인 순간 나오는 홈런도 반갑다. 지난주 KIA가 기록한 5승에는 홈런이 있었다. 소크라테스와 이창진이 홈런쇼를 펼쳤다. 소크라테스는 17·18일 연달아 홈런을 날리면서 롯데를 무너뜨렸다. 17일에는 9회초 롯데 마무리 최준용을 상대로 2-3의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동점포를 터트려 재역전승을 이끌었다. 18일에는 7-7로 맞선 8회, 승부의 추를 기울이는 결승 스리런을 장식했다. 이창진은 3개의 홈런으로 승리의 주역이 됐다. 19일 3-2의 아슬한 리드가 이어지던 9회초 상대의 추격 의지를 꺾는 솔로포를 날렸고, 22일 NC와

한승혁 선발진 첫 단추 중요 소크라테스·이창진 홈런쇼 등 뜨거워진 타선 맹활약 주목 숨막히는 순위 싸움 치고 나가기 양현종 타이거즈 다승 도전도 눈길

의 경기에서는 2회 첫 타석에 이어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도 홈런을 날리면서 연달아 그라운드를 뒤흔었다. 화력을 앞세운 KIA는 주중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이어 주말에는 안방에서 SSG를 상대한다. KIA가 올 시즌 두 팀을 상대로 거둔 승수는 '0'이다. 4월 29일부터 진행된 삼성과의 홈 3연전에서 KIA는 싹쓸이 3연패를 당했다. 불펜진의 난조로 3경기 모두 충격적인 역전패가 기록됐다. SSG는 올 시즌 첫 원정 상대로 만나 역시 스윙패를 당했다. 삼성과는 공동 4위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주중 경기에서 두 팀의 순위는 오르락내리락할 전망이다. 1위 SSG와는 4월 10일 이후 한 달 여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만큼 흥미로운 설움이 될 전망이다. 마운드 출발이 중요하다. KIA는 지난주 박병호를 이어가면서 선발 복

귀를 준비했던 로니 윌리엄스를 불펜으로 투입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지난 시즌 홈드라마를 차지한 장현식이 흔들리면서 전상현이 8회로 이동하는 등 변화도 있었다. 선발진이 많은 이닝을 책임지면서 불펜진의 부담을 줄여주고, 기다리면 터지는 KIA 타선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만큼 가장 먼저 마운드에 오르는 한승혁의 이닝과 성적이 중요하다. 한승혁은 지난 12일 KT와의 홈경기에서 박병호에게 스리런을 맞으면서 아쉬운 6회를 보냈고, 18일 롯데 원정에서는 2회도 버티지 못하고 1.2이닝 5실점으로 무너졌다. 예전보다는 정교함이 더해졌지만 위기가 많다. 한승혁은 올 시즌 1.42의 이닝당 출루허용율과 0.276의 피안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방을 조심하고 깔끔하게 이닝을 정리하면서 선발진 첫 단추를 잘 끼워줘야 한다. 양현종의 타이거즈 최다승 타이틀 도전에도 눈길이 쏠린다. 양현종은 지난 19일 롯데를 상대로 7.2이닝 2실점의 호투를 기록하며 최연소 150승을 기록했다. 이번 주중 삼성과의 경기에서 승리투수가 되면 양현종은 이강철 KT 감독이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기록한 150승을 넘어 팀 최다승 주인공이 된다. 삼성, 대구에 좋지 않은 기억이 많은 양현종이 노련함으로 악몽을 지우고 타이거즈 역사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창진

3년만에 열린 전남체전 폐막...순천시 종합우승

최우수선수에 수영 4관왕 김민섭

코로나19 사태로 3년 만에 열린 제61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서 순천시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순천시에서 개최된 이 대회에서 순천시가 총점 4만3735점을 획득, 2006년 45회 대회 이후 16년 만에 1위에 올랐다. 순천시는 이번 대회 포함 8번째 종합 우승기를 받았다. 전남체전 역대 최다 우승 시·군은 여수시(17회)다. 여수시(3만6275점)가 준우승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영암군(3만2025점), 광양시(3만1925점), 신안군(3만0550점), 해남군(3만0063점), 목포시(2만9025점) 순이었다. 대회 최우수 선수로는 김민섭(여수 총무고 3년)이 선정됐다. 수영 4관왕(자유형 200m, 접영 100m, 계영 200m, 혼계영 200m)을 달성했다. 고흥 대표 김경희는 역도 여자 -49kg급에서 합계 80kg을 들어올려 2013년부터 내리 8차례 정상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모범선수단상은 진도군, 모범종목단체상은 전남탁구협회가 받았다. 장려상 수상 시·군은 나주시, 구례군, 영광군이다. 지난 대회보다 종합순위가 향상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성취상 1위는 무안군이었으며, 다음으로 장흥군, 곡성군 순이었다.



23일 순천팔마체육관에서 열린 제61회 전라남도체육대회 폐회식에서 상을 받은 시·군 관계자들이 대회 성공 개최를 기념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개회식 입장장은 완도군(1위), 순천시(2위), 해남군(3위)이 받았다. 전남도체육회는 이번 대회도 지난대회와 마찬가지로 200만 전남도민 모두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체험하고, 선수단과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코로나19 방역 매뉴얼을 사전에 배포하고 대회 방역 수칙을 적극 준수한 덕분에 코로나19 확진자

가 한 명도 없는 성공체전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남도체육회 최기동 회장 직무대행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체육을 통해 도민이 하나된 이번 대회를 발판삼아 10월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하고 내년엔 전남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펜싱 사브르 구분길 국제그랑프리 준우승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의 베테랑 구분길(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제그랑프리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구분길은 2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파도바에서 열린 사브르 그랑프리대회 남자부 경기에서 아

론 실라지(헝가리)에 이어 준우승했다. 구분길은 2020년 3월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월드컵 은메달 이후 2년여 만에 국제대회 개인전 입상을 기록했다. 이날 16강전에서 산드로 바자제(조지아)를 15

-7로 제압한 구분길은 막심 피안페티, 블라드 아피티(이상 프랑스)를 연파해 결승까지 기세를 올렸다. 하지만 구분길은 결승전에서 도쿄올림픽 개인전 우승자 실라지에게 14-15로 석패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준호(화성시청)는 6위, 오상욱(대전시청)은 9위에 올랐다. 여자부에선 최수연(안산시청)이 6위, 전하영(대전시청)이 7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토머스 6타 차 뒤집고 '메이저 킹'

PGA 챔피언십 연장전 끝 우승

저스틴 토머스(미국)가 5년 만에 PGA 챔피언십 우승컵인 '워너메이커 트로피'를 다시 들어 올렸다. 토머스는 23일(한국시간)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서던힐스 컨트리클럽(파70-7556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PGA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윌 젤러토리스(미국)와 동타를 이룬 뒤 이어진 연장전 승리로 우승했다. 토머스는 지난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 후 약 1년 2개월 만에 PGA 투어 통산 15번째 우승이자, 2017년 PGA 챔피언십 우승 후 5년 만에 두 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을 기록했다.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로 3언더파 67타를 때려 최종합계 5언더파 275타로 공동 1위에 오른 토머스는 젤러토리스와 13번 홀(파5)과 17번 홀(파4), 18번 홀(파4)에서 연장전을 벌였다.



23일 열린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저스틴 토머스. /연합뉴스

13번 홀에서 나란히 버디를 기록한 토머스와 젤러토리스의 승부는 17번 홀에서 갈렸다. 티샷을 홀 옆 약 10m에 갓다 붙인 토머스는 아깝게 이글 퍼트는 놓쳤지만 약 90cm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파를 기록한 젤러토리스에 1타 앞서 갔다. 마지막 18번 홀에서 젤러토리스가 약 12m 버디 퍼트로 동점을 노렸지만 실패했고, 토머스가 곧바로 파 퍼트에 성공하면서 우승을 확정했다. 3라운드 선두였던 미토 페레이라(칠레)는 1타 차 선두를 달리다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더블 보기를 기록해 최종합계 4언더파 276타로 캐머런 영(미국)과 함께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최종합계 3언더파 277타를 친 매트 피츠패트릭과 토미 플리트우드(이상 잉글랜드), 크리스 커크(미국)가 공동 5위에 올랐고, 1라운드 선두였던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2언더파 278타로 8위를 차지했다. 지난주 AT&T 바이런 넬슨 우승자 이경훈(31)은 최종합계 5오버파 285타에 그쳐 공동 41위로 대회를 마무리했고, 김시우(27)는 9오버파 289타로 공동 60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범죄도시 2
- 2관 범죄도시 2
- 3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배드 가이즈
- 4관 범죄도시 2
- 5관 범죄도시 2, 책인 더 박스
- 6관 범죄도시 2
- 9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 7관 씨네캐슬 범죄도시 2, 아치의 노래, 정태춘,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서울괴담
- 8관 씨네캐슬 범죄도시 2, 서울괴담,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더어의 비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Brahms's

03 JUN J. Brahms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타움 콘서트 III

Brahms's

일시 : 2022.06.03.(금)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524-5086

상설주극공연

2022년 05월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5.03.(화)~31.(화)
매주 화요일 ~ 토요일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